

<기말보고서_삶으로서의 은유>

은유를 통해 바라보는 세상

불어불문학과 202127879 안현주

1. 서론

누군가에게 “은유란 무엇인가? 그 예시를 대어보라.”라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은유란, ‘내 마음은 호수요’처럼 대상을 비유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필자 또한 위와 같은 질문을 받았다면 똑같이 대답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필자는 은유가 그저 문학, 시에서 주로 쓰이는 문학적 표현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지 레이코프와 마크 존슨의 『삶으로서의 은유』를 읽으며 ‘은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 책은 은유가 단지 문자적,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문화적 측면 속에서 생겨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 녹아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이 책에서 소개해주는 다양한 은유의 개념과 정의 그리고 그 예시들을 살펴봄에 이에 대한 견해를 나눠 볼 생각이다.

2. 본론

2-1. 구조적 은유

이 책의 저자들은 은유가 단순히 언어만의 특성이 아니라 사고와 행동의 관점이 되는 일상적 개념 체계의 본성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체계성을 가진 구조적 은유는 한 개념을 다른 개념의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구조화하는 방식이다. 이는 [논쟁은 전쟁]이라는 예시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논쟁을 전쟁의 관점에서 담화 형태로 구조화한 것이다. 위와 같은 영향으로 우리는 논쟁을 할 때 상대를 적수로 보기도 한다. 이 부분을 읽으며 논쟁이 전쟁의 관점에서 구조화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논쟁의 개념과 전쟁의 개념이 생겨나기 이전에는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궁금해졌다. 필자는 이 두 개념이 생겨나기 전에도 그들은 논쟁을 해왔고 전쟁을 해왔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을 했을지 궁금했고 논쟁과 전쟁의 경우 부분적으로 본유적 속성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논쟁은 전쟁]은유와 비슷한 방식으로 표현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 대화가 논쟁으로 바뀌는 경우는 논쟁이 ‘전투의 감정’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서술하지만 전투라는 표현보단 다툼의 표현이 옳다고 생각한다. 논쟁은 언어로 하는 다툼이라면 전쟁은 물리적 다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둘 다 ‘다툼’이라는 부분적으로 공통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논쟁이 전쟁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념의 비슷한 속성으로 인해 전쟁의 관점에서 논쟁을 부분적으로 구조화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즉, ‘논쟁’과 ‘전쟁’이 비슷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한 개념이 다른 개념의 관점에서 구조화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위에서 말하는 구조적 은유는 비슷한 개념을 공유하는 한 요소가 있다는 특성 안에서 한 개념이 다른 개념에 의해 구조화되어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 은유라고 불리는 표현들은 은유와 그 대상을 지칭하는 개념이 생기기 전부터 존재했고 개념이 생긴 후 인간에 의해 구조화 되면서 본격적으로 은유라고 불리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논쟁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싸움의 관점에서 담화 형태를 구조화한다고 보는 것이 아닌 춤의 관점에서 논쟁을 구조화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문화적 경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은유가 어떤 하나의 개념을 다른 하나의 경험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구조를 가진 경험을 또 다른 하나의 구조를 가진 경험으로써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유들은 서로 완전히 들어맞는 일관성을 갖는 것이 아닌 정합성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은유에 대하여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은유가 부분적인 자연적 경험에 의해 정의되고 구조화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 하나의 의문점이 생길 것이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인간이 경험하는 것은 문화적, 개인적으로 다른데 과연 무엇이 '경험의 기본 영역'을 형성할까? 저자들은 '체험적 게슈탈트'가 이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체험적 게슈탈트는 우리 경험 속의 구조화된 전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자연스레 얻게 된 인간 고유의 행동이 은유에 의해 정의된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위에서 말한 저자들의 말에 동의하며 결국 인간의 사고와 행동 그리고 경험은 은유와 떼어놓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느꼈다.

결국 은유란 우리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나에 따라 상대적으로 은유도 달라지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사랑]과 관련한 은유를 들 수 있다. 사랑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마치 마법 같은 사랑을 경험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만약에, 상대가 나에게 최면을 건 것처럼 나를 홀렸다면 'She had me hypnotized. (그녀는 나에게 최면을 걸었다.)'처럼 [사랑은 마법]이라는 은유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앞선 사례와 달리 사랑을 마치 정복하는 것으로 여긴다면 'He is known for his many rapid conquests. (그는 많은 여자를 재빨리 정복한 것으로 유명하다.)'로 표현함으로써 [사랑은 전쟁]이라는 은유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사랑은 사람들이 사랑을 보고 경험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되고 표현된다.

은유는 그저 하나의 고정되어 있는 표현이 아닌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과 이를 바라보는 수 많은 관점에 따라 그에 맞는 은유적 표현이 새로 생겨나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은유는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레 녹아 있고 이로 인해 우리는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은유가 삶 속에 있다는 주장과 은유가 우리의 개념 체계를 구조화하고 있다는 저자들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었다.

물론 은유가 한 개념을 완전히 대표한다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앞서 보았던 [사랑]은유를 다시 생각해보면, [사랑은 마법]은유에 의해 표현될 수 있고 [사랑은 전쟁]은유에 의해 표현될 수도 있다. 이처럼 '사랑'이라는 단어는 여러 개념에 의해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마법'이 사랑을 완전히 대표할 수도 없고 '전쟁'이 사랑을 대표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처럼 은유는 어떤 실재를 '부각'할 수도 '은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사랑은 전쟁]의 은유 만을 보게 된다면 사랑이 갖는 '쟁취', '정복', '싸움'의 측면이 과도하게 부각되어 사랑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주의점을 알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한 개념을 봤을 때 은유에 표현된 한 쪽 측면으로만 인식하게 하고 다른 측면을 못보게 할 수도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를 잘 고려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3. 객관주의의 신화

저자들이 주장해온 은유는 소크라테스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서구 문화를 지배했던 서양 철학의 전통과 많은 부분이 대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객관주의적 해명은 정의상 문자적(관습적)은유와 같은 것은 존재할 수 없으며 은유는 오직 객관적 유사성만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이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필자는 객관주의적 해명을 읽으며 왜 세상을 그저 참과 거짓, 옳고 그름 등으로만 바라보며 진리를 규명하려는 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물론, 세상이 각각의 개인 즉, 고유의 개별적인 존재로만 이루어져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필자는 개별적인 개체로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개별 개체 간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실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개체도 결국은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상대적인 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냐'라는 측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객관주의자들은 모든 은유를 간접적인 의미의 경우로 본다. 그래서 객관주의자들은 '관습적 은유'라는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 예시로 I can't digest all these facts.(나는 이 사실들을 다 소화할 수 없다.)라는 문장을 살펴보자. 객관주의자들은 '소화'라는 단어가 그저 동음이의어 일 뿐 은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다르다. 동음이의어란 읽었을 때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낱말을 동음이의어라고 한다. 그러나 객관주의자들은 앞선 문장 '나는 이 사실들을 다 소화할 수 없다([관념]을 소화하다)'와 '음식을 소화하다'의 '소화하다'를 상이하게 준별되는 문자적(객관적)의미로 본다. 하지만 필자는 두 개의 '소화하다'라는 개념을 다른 의미로 보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음식을 소화하는 것은 이를 '흡수하는 것'과 의미가 상통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실들을 다 소화할 수 없다'는 문장도 마찬가지로 '이 사실들을 본인이 흡수할 수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두 개념 모두 '무언가를 흡수하다'의 의미로 상통되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가 다르다고 하여 둘을 나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2-4. 체험주의

저자들은 앞서 보았던 객관주의 신화나, 객관주의에 대한 주된 대안인 주관주의 신화의 부적절성을 제시하며 제 3의 선택인 체험주의를 제안하였다. 체험주의는 객관주의나 주관주의의 동기가 되는 것을 일부 유지하는 점에서 이들을 완전히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의 경우에도 객관주의와 주관주의를 완전히 배척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 예로 객관주의의 동기가 되는 관심사인 사물과 상호작용하는 방식과, 물리적 문화적 환경 안에서의 성공적 활동을 위한 그 지식의 중요성을 체험주의에도 적용한다. 그리고 주관주의의 동기가 되는 관심사인 항상 개인에게 있어서의 의미를 체험주의에서도 동의한다. 따라서 체험주의 신화는 두 신화의 동기가 되어 온 실제적이고 이성적인 관심사들을 은유를 통해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본다. 필자도 저자들의 제 3의 선택인 체험주의 입장에 동의한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신화의 반박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서 체험주의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체험주의를 그저 객관주의의 일부, 주관주의의 일부, 그리고 실제적이고 이성적인 관심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만 정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아쉽다.

3. 결론

이렇게 우리는 은유가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은유의 실례들을 살펴보고 은유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도 알아보았다. 우리 주변에는 무수히 많은 은유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이 너무 관습화 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은유인지 모르거나 부정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개념 체계를 구조화하는 은유에 대해 다시 한 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G.레이코프, M.존슨, 『삶으로서의 은유』, 나익주, 노양진 역, 박이정, 2006